

2/5/17

설교 제목: 연보에 관하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고린도전서 16:1-4

(고전 16:1)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전 16: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전 16:3)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절관주** 고후 8:19

(고전 16: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15 장에서 부활의 영광과 사망의 멸망을 말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 장에서는 연보(1-4 절)에 관한 것과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여정(5-9 절)에 대해 말하고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합니다.

본문은 그 중 연보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연보의 의미와 목적, 연보하는 방법, 연보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연보"란 말 대신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헌금'이란 말은 '돈을 바친다'는 뜻인데 연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보를 말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χαρις, 본문 3 절), '축복'(ευλογία, 고후 9:5), '모금'(λογειας, 본문 1 절), '교제'(κοινωνια, 롬 16:26), '봉사'(λειτουργια, 고후 9:12), '구제'(ελημοσυνα, 행 24:17) 등등 입니다.

그만큼 연보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뜻이며 우리는 각각 사용된 단어를 통해 연보의 본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언급된 연보의 목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등하게 분배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후 8: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고후 8: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자로부터 모금해서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연보의 한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연보 'λογεια'도 모은다(collectio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10 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 1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굶주리며 사는 것은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나눔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 장 5 절에서 연보를 헬라어 'ευλογία'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복(blessing)이란 의미입니다.

(고후 9: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고후 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 (고후 9:9)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 (고후 9: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 (고후 9: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 언론, 영화, 보석 등등 돈 되는 사업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돈에 대하여는 무서우리 만큼 철두철미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에 대해 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을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십일조 생활입니다.

그들은 평생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십일조를 통해 번영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올바른 연보 생활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도간의 교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롬 15: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롬 15: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매를 연보하였음이라

(롬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연보를 '헬라어로 'διακονων'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섬긴다, 봉사한다(serve) 돌아본다(care for) 돕는다(support)는 뜻입니다.

연보는 성도 교제의 일환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연보를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제의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에 교제를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로써 도움을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영적인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고전 9: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주고 받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도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넷째, 신앙 고백이 목적입니다.

연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 24: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딤후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딤후 6: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빈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집도, 땅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직업도,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재능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관리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반납하고 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더불어 말이니라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것 가운데 일부를 본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성경적인 연보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바른 연보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전 16: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째, 연보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일 예배시에 정기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연보는 예배의 한 부분이므로 예배 시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보를 예배 때에 드리지 않고 임의대로 자선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연보의 액수입니다.

연보 액수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소득에 따라 적절히 하면 됩니다.

연보의 액수를 정하는데 기준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큼 하면 됩니다.

셋째, 연보의 준비입니다.

'모아 두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몫을 따로 떼어 구별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성경이 금하는 연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소득에 대한 연보를 금합니다.

성경은 부정한 수입의 연보를 거절합니다.

(신 23:18)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그 중 십일조를 떼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 기독교 단체에 헌금을 했는데 그 단체가 헌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복권을 통해 얻은 수입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시용 연보를 거부합니다.

과시용 연보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 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사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셋째, 억지 연보를 거절합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는 신앙 고백이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각기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소득의 10분의 1, 십일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해진 기준 때문에 연보를 하기보다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놓는 순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어 버리고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신앙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돈에서 해방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에 대해 사람에게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마음이 향해 있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바른 연보 생활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